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성지미** · 안주엽***

1990년대부터 진행된 고등교육 보편화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수요 및 채용관행의 변화로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 ‘스펙 쌓기’, 즉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다. 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성적,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등 취업사교육은 대학 졸업(예정)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실효성이나 비용 대비 혜택은 이론과 다를 수 있다.

대졸 청년층의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돕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자료에 포함된 2009년 대졸자(14,401명)의 취업사교육의 실태와 이의 첫 일자리와의 관계를 기초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후, Heckman 선택모형(selection model)을 적용하여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및 취업사교육(여부와 투자기간 및 투자비용)의 추가효과를 분석한다. 추정결과는 1,350만 원을 들인 9개월의 어학연수는 취업과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반면 139만 원(본인부담액은 25만 원)을 222시간에 투입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과 임금수준 모두에 부정적이며, 영어시험 성적은 임금수준에는 긍정적이지만 취업에는 부정적인 반면 실제 17개월을 준비하여 얻은 자격증은 취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임금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은, 만약 이에 합격한다면 임금수준에는 긍정적이지만 취업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반면 이에 합격하지 못하면 취업에 부정적이며, 특히 공무원시험 불합격은 임금수준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한 금전적 비용(pecuniary costs)뿐 아니라 시간적 비용(time costs)을 수반하는 취업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투자는 오히려 첫 일자리에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적정성 확보, 즉 합리적 투자 결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고학력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스펙 쌓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관행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학(취업정보실)은 이러한 정보를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전화: (041) 560-1439, E-mail: jsung13@kut.ac.kr

*** 교신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02) 3775-5555, E-mail: jyahn@kli.re.kr
논문투고일: 2012. 6. 1 수정일: 2012. 6. 20 게재확정일: 2012. 7. 6

6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고용가능성이 낮은 재학생의 조기 변별, 심층상담을 통한 실현가능한 취업목표의 설정, 고용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제공 또는 알선 등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전반에 걸친 실제적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취업사교육, 첫 일자리, 임금수준, Heckman의 선택모형,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2, J3, C4, E2

I. 서 론

‘좋은’ 대학을 가고 ‘괜찮은’ 직장을 잡아 ‘멋진’ 삶을 살겠다는 또는 반대로 ‘루저(looser)’의 삶을 피하려는 인식이 초중등교육에서 사교육의 보편화를 가져온 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사교육 조기화와 함께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용 ‘스펙 쌓기’는 도를 더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 사교육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고시촌’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저락하고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사교육이 없는 ‘저비용 균형(low cost equilibrium)’ 대신 모두의 사교육 참여로 아무런 순위변동이 없는 ‘고비용 균형(high cost equilibrium)’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정상적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교육이 존재할 때와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이지만, 타인의 사교육 참여에 따른 본인의 순위하락을 피하려다보니 너도나도 사교육을 수요하게 된다.

청년층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기업은 청년층 구직자의 학업수행 결과를 업무능력의 대리변수로 채택하지만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되지 않아 직무특성을 고려한 채용요건을 활용한다. 노동시장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기업의 채용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과정 이외에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는 금전적 비용(peccuniary costs)과 시간적 비용(time costs)을 유발한다. 대졸자 취업난과 함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교육비가 등록금에 더하여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태기 등(2005)은 취업에서의 장애요인으로

구직자가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채창균 등 (2005)은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능력이 중시되지만 청년층은 외국어에 치중함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연구는 대학 재학 비용(등록금, 교재비, 수업준비 비용, 단체활동 비용, 교통비용)과 그 외 비용(학원비, 문화·활동비용, 잡비)을 모두 포함하여 지출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천세영 등, 2004)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대학수업 이외의 사교육에 수반되는 비용, 즉 학원수강비, 과외수업료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만을 포함하여 사교육비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안국 등, 2010; 민혜리, 2003).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대졸(예정)자들이 청년층 취업난 속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사교육으로 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성적(iBT, TEPS 등), 직업교육훈련 참여나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이나 전문자격시험을 포함한다. 둘째, 이들 취업사교육 각각이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 여부와 첫 일 자리에서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이러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취업사교육 투자 여부 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투자액도 고려한다. 셋째, 이러한 취업사교육의 투자효과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다. 이론적으로는 투자효과에서 성별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 자료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년층이 첫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취업사교육과 이의 효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문헌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Ⅲ절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취업사교육의 현황과 첫 일자리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먼저 실증분석모형(Heckman selection model)과 우도비 검정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구성된 기본모형과 취업사교육을 추가한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취업사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후 취업사교육 여부에서 더 나아가 취업사교육 투자기간 및 투자비용이 미치는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연구결과 및 이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II. 취업사교육 관련 기존 연구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미취업 탈출기간, 취업 여부, 임금수준, 대기업 취업 또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등이며,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족 관련 변수, 학교특성 관련 변수, 취업준비 관련 변수로 크게 구분된다(〈표 1〉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과 연령이 주로 사용되었고, 가족 관련 변수에는 부(wealth)의 세대 간 이전을 고려하고자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사용된다. 학교 관련 특성으로는 학교의 서열, 소재지, 국공립 여부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대학입학 당시 선별기제로 작동하는 대학의 서열화가 취업까지 연결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밖에 전공계열 등 특성이 포함되는데 전공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취업준비와 관련된 특성은 자격증 여부 또는 개수, 근로경험, 직업훈련, 어학 점수, 어학연수 경험, 취업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취업준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국노동패널』(홍서연·안주엽, 2002)이나 취업준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박환보, 2011; 강순희·안준기, 2010; 우광호 등, 2010; 박가열·천영민, 2009; 김정숙, 2009; 최문경·이기엽, 2008; 황여정·백병부, 2008; 이규용·김용현, 2003)와 『청년패널』(우해봉·윤인진, 2008; 채구목, 2007; 류장수, 2003; 류장수, 2005)이 주로 사용된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노동력 상태 및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강순희·안준기(2010)는 전년도 실업상태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실업 경험의 낙인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의 실업 여부는 취업확률을 낮추고 미취업기간을 늘리는 한편, 직업훈련 경험은 취업확률에서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를 이용한 이병희 등(2002)의 연구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학교 졸업 후 미취업기간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미취업의 장기화로 인적자원의 축적이 저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미취업 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을 분석하는 류장수(2003, 2005)는 지방대 졸업생은 수도권지역 졸업자와 비교하여 미취업 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이 낮았고,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층은 미취업 탈출확률과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수준은 높지만 미취업 탈출기

〈표 1〉 주요 기존 문헌 요약

	취업 여부	임금수준	미취업 탈출확률	대기업/정규직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경험		(-) 이규용·김용현(2003): 전문대 졸업생	(+) 홍서연·안주엽(2002) 최문경·이기엽(2008) 이규용·김용현(2003)	
시간제 경험 정규직 경험	(+) 우해봉·윤인진(2008)	(+) 박성재·반정호(2006): 전문대 졸업생 (-) 박성재·반정호(2006): 대학생의 경우	(-) 정규직 경험 박성재·반정호(2006)	
직업훈련 (일반)	(일관적 아님) 강순희·안준기(2010) (+) 학내 취업준비 프로그램: 박환보(2011)	(+) 이규용·김용현(2003)	(+) 강순희·안준기(2010) 최문경·이기엽(2008) (영향력 없음) 이규용·김용현(2003)	
	보유	개수	개수	개수
자격증 보유/ 자격증의 수	(-) 강순희·안준기(2010) 박가열·천영민(2009): 구직경험 있는 경우 (+) 박가열·천영민(2009): 구직경험 없는 경우 채구묵(2007) 우해봉·윤인진(2008)	일관적 아님: 이규용·김용현(2003)	(+) 최문경·이기엽(2008) 이규용·김용현(2003)	(-) 김정숙(2009)
학점 어학점수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채구묵(2007)	(+) 박성재·반정호(2006): 학점, 어학점수	(-) 박성재·반정호(2006) (+) 최문경·이기엽(2008)	(+) 황여정·백병부(2008) 김정숙(2009)
어학연수		(+) 우광호 등(2010)	(+) 최문경·이기엽(2008)	(+) 박가열·천영민(2009) 김정숙(2009)
어학연수 비용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 황여정·백병부(2008) 박환보(2011)
취업준비 여부		(+) 박성재·반정호(2006)	(-) 박성재·반정호(2006)	
취업사교육		(+) 우광호 등(2010): 가구소득 낮은 계층		(+) 황여정·백병부(2008) 김정숙(2009): 영어

간은 긴 것으로 나타나 취업시기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취업이 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재·반정호(2006)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졸업자조사』를 이용하여 임금수준과 미취업 탈출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학점이나 토익점수(700점 이상) 등 취업준비를 하면 임금이 높지만 학점이나 정규직 경험 등 취업준비를 하면 의중임금이 높아져 미취업기간이 길어짐을 보이고 있다.

구직활동에 초점을 둔 최문경·이기엽(2008)은 GOMS를 이용하여 탈출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학점, 자격증의 수, 어학연수,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독립변수는 탈출확률을 높이고, 구직활동은 조기 취업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규용·김용현(2003)은 출신대학과 취업준비 노력(자격증 수, 학원·직업훈련 이수, 재학 중 근로경험)이 미취업기간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재학 중 근로경험은, 특히 전문대 졸업생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임금수준은 낮추며, 다수의 자격증은 탈출확률은 높이지만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직업훈련은 미취업 탈출확률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임금수준은 높이고 있다.

취업준비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가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를 이용하여 취업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변수의 효과가 모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여정·백병부(2008)는 GOMS를 이용하여 취업 여부와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학점, 대학의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어학연수 비용은 취업확률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이는 반면 취업사교육 비용과 자격증 수는 취업에는 영향력이 없지만 대기업 취업확률을 높이고, 졸업 전 구체적 취업목표는 취업확률에는 별 효과가 없지만 대기업 취업확률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박환보(2011)는 GOMS 자료가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 변수와 함께 대학특성(준칙주의,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대학의 서열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연결하여 이들이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령, 가계소득과 같은 개인·가족특성과 함께 성적, 어학연수 비용, 학내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학교의 정규직 취업률은 대졸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며, 특히 어학연수 비용은 정규직 취업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박가열·천영민(2009)은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 전후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여 취업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격증 보유는 구직활동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취업확률을 높이고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취업확률을 낮추는 한편, 어학연수는 대기업 취업에서만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김정숙(2009) 역시 GOMS를 이용하여 어학연수와 영어사교육 경험이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학점이 높거나 어학연수 또는 영어사교육 경험은 대기업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자격증의 수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채구목(2007)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및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성별은 취업 여부에는 영향력이 없고 임금수준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적과 자격증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임금수준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패널』을 이용한 우해봉·윤인진(2008)은 교육과 1997년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에 미친 영향력을 보고 있는데, 높은 교육수준, 파트타임 경험, 또는 자격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며, 경제위기 이후 졸업한 청년층이 이전 졸업생보다 첫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학교교육-일자리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어 능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천순·양병무, 2006), 구직활동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구직경로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병훈, 2002)가 있다. 조영하 등(2008)은 특정 대학의 2006년도 졸업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 여부, 전공일치 취업 여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정지선 등(2011)은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 열량일치도, 전공일치도, 취업목표 일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Ⅲ. 취업사교육 기초분석

1. 자료 및 표본

1) 자료: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원활한 학교교육-노동

1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시장 이행과정을 위한 정책수요 역시 늘어 왔으며, 향후 대학교육서비스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는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실증적 조사 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매년 1만 8,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신규로 대졸자들을 조사하고 2년 뒤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0년 1차 조사를 실시한 자료(2009GOMS1)를 이용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조사기준일) 현재 경제활동, 현 직장(일자리), 첫 직장(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고등/대)학교 생활, 현재 재학중 학교,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어학연수 경험, 졸업 전 취업 목표, 졸업 전 후 취업준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 현재 구직 활동, 향후 진로, 인턴제 및 청년고용대책, 인적 사항 및 가족 등 정보이다.

2) 표본

연구목적에 위하여 전체 표본 1만 8,011개 중 졸업 당시 30세 이상인 표본(1,498개), 첫 일자리 취득 이전 대학원에 진학한 표본(1,283개), 첫 일자리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무응답한 표본(201개), 졸업 전 1년 전 이전에 일자리를 가진 표본(638개)을 순차적으로 제외한 결과, 분석 대상 표본은 1만 4,401개로 자료의 가중치를 적용하면 2009년 졸업생 38.2만 명을 대표한다.

<표 2>는 표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의 분포를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 졸업생 표본이 약 3분의 2(가중치로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이 32%, 교육대학이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전문대학과 교육대학 비중이 다소 높다.

전공별 표본분포를 보면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이 각각 25%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예체능계열, 이학계열, 인문계열은 각각 10%를 약간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며, 사범계열과 의학계열은 각각 8.6%와 6.5%를 차지한다. 이를 성별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이 공학계열(41%)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여성은 10% 미만). 대신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범계열과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계열에서는 성별 비중이 거의 유사하다.

1) 이하에서는 『대졸자조사』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웹사이트 http://survey.keis.or.kr/survey_keis/ 참조.

〈표 2〉 표본 분포

(단위: 개, 명, %)

	전체		남성		여성	
	표본	가중치	표본	가중치	표본	가중치
전체	14,401	382,309	7,638	185,681	6,763	196,628
대학 유형						
전문대학	32.3	38.1	30.6	34.5	34.2	41.5
일반대학	65.6	60.4	68.2	64.6	62.6	56.4
교육대학	2.1	1.5	1.2	0.9	3.3	2.1
전공계열						
인문	10.0	9.6	6.9	6.4	13.6	12.6
사회	24.2	27.2	23.4	26.3	25.3	28.0
사범	8.6	7.4	4.2	3.5	13.4	11.2
공학	26.3	23.3	41.0	38.9	9.6	8.6
이학	11.7	10.2	10.4	9.1	13.2	11.3
의학	6.5	8.6	4.5	5.4	8.9	11.7
예체능	12.6	13.6	9.6	10.6	16.0	16.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2. 취업사교육

1) 취업사교육의 정의

『대졸자조사』에서는 청년층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을 전후한 시기에 취업을 위해 쏟는 다양한 노력을 포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력들 중 대학 ‘교육과정 이외에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고자 추가로 비용과 일정한 시간을 투입하는 행위’를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이라고 정의한다.²⁾ 본고에서는 조작적 정의에 따른 취업사교육에 (해외)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직업교육훈

2)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취업사교육 투자라기보다는 취업준비로 분류된 항목으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참여(① 진로, 취업에 관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 ②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③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④ 교내 취업박람회, ⑤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⑥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⑦ 취업캠프 등),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취업 여부 및 첫 일자리에서 임금수준을 추정할 때 설명변수로 이들을 포함한다.

14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련,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을 포함한다.

2) 취업사교육: 어학 관련

(1) 어학연수

어학 관련 취업사교육은 어학연수와 영어시험이 포함된다. 먼저 어학연수를 보면, 『대졸자조사』에서는 어학연수 경험 여부와 국가, 어학연수 기간 및 총비용에 대한 정보(어학연수 경험이 2회 이상이면 체류기간이 긴 순으로 3개까지)를 파악하고 있다.³⁾

〈표 3〉은 대학 유형과 전공별 대졸자의 어학연수 경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졸자 중 15%가 약 1,350만 원을 들여 평균 9.4개월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다소 많으나 연수기간은 다소 짧고 연수비용도 다소 적다.

대학 유형별로 어학연수 경험 비중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20%를 상회하는 반면, 교육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10% 정도이며 전문대학 졸업생 중에서는 5% 정도이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인문계열에서 36%(여성에서는 38%)로 월등히 높고,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및 이학계열에서는 15%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예체능계열과 사범계열에서는 8% 정도의 낮은 수준이며, 의학계열에서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어학연수 기간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는 거의 10개월에 이르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전공별로는 어학연수 경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인문계열에서 11개월로 가장 긴 반면 사범계열에서는 7.3개월로 가장 짧다.

어학연수 비용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 1,422만 원인 반면 어학연수 기간이 짧은 교육대학에서는 900만 원 정도이나 단위기간당 비용이 높고, 전문대학에서는 844만 원으로 단위기간당 비용이 낮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에서 1,422만 원과 1,394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의학계열과 사범계열에서 1,089만 원과 1,10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3)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어학연수 간 나라는?’, ‘어학연수를 위해 해당 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학연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서 단순한 해외여행 및 교환학생 경험,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교환파견 근무, 해외직무 연수 등은 어학연수에서 제외.

〈표 3〉 취업사교육: 어학연수

(단위: %, 월, 만 원)

	연수비율			연수기간			총비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5.2	15.0	15.4	9.4	9.6	9.1	1,350	1,371	1,329
대학 유형									
전문대학	4.9	4.5	5.2	7.4	8.4	6.8	844	887	813
일반대학	21.8	20.7	23.0	9.7	9.8	9.6	1,422	1,427	1,418
교육대학	9.9	5.5	11.6	5.1	7.2	4.7	909	976	896
전공계열									
인문	35.5	30.6	37.8	10.8	10.7	10.8	1,394	1,330	1,419
사회	16.7	17.5	16.1	9.4	9.9	8.9	1,422	1,505	1,342
사범	8.2	7.5	8.5	7.3	8.7	6.9	1,103	1,185	1,081
공학	15.2	14.9	16.0	8.9	9.0	8.3	1,330	1,356	1,224
이학	14.4	13.4	15.1	9.1	10.2	8.4	1,282	1,305	1,267
의학	5.2	6.5	4.6	8.2	10.5	6.8	1,089	1,256	980
예체능	8.5	7.3	9.2	8.5	8.5	8.5	1,310	998	1,46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2) 공적 영어시험

『대졸자조사』에서는 공식 영어시험인 토익(TOEIC), 토플(TOEFL)(PBT, CBT, IBT), 텡스(TEPS), 아이엘츠(IELTS) 중 한 가지의 성적을 묻고 있다.⁴⁾ 대졸자의 영어시험 응시 비중과 성적을 보여주는 〈표 4〉에서 보듯이, 대졸자 4명 중 1명이 영어시험을 본 경험이 있으며, 평균 성적은 76% 정도이다.⁵⁾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영어시험에 응시한 비중이 다소 높고, 성적 역시 미미하나 다소 높다.

대학 유형별 영어시험 응시 비중은 교육대학에서 44%로 매우 높은 반면 전

4) 설문항은 ‘최근 2년(2008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이내에 공식기관을 통해서 영어시험을 본적이 있습니까?’와 ‘최근 2년(2008년 9월 1일~2010년 8월 31일) 이내에 공식 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가장 좋은 영어점수는 몇 점입니까?’이다. 공식 영어시험을 본 표본의 대부분은 토익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JPT 또는 JLPT)와 중국어(HSK 또는 CPT) 및 그 외 외국어는 성적 또는 수준의 표준화가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일자리에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5) 영어성적은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의 각 영어시험별 최고 점수 대비 해당 표본의 성적의 비율로 정의한다.

〈표 4〉 취업사교육: 영어시험

(단위: %)

	영어시험 경험			영어시험 성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4.3	25.8	22.9	75.8	76.2	75.3
대학 유형						
전문대학	6.1	5.4	6.6	62.6	63.3	62.2
일반대학	35.3	36.4	34.2	77.2	77.2	77.2
교육대학	44.2	48.5	42.4	74.8	74.5	74.9
전공계열						
인문	34.6	34.4	34.7	79.2	80.2	78.7
사회	28.3	31.3	25.7	77.6	78.9	76.2
사범	20.9	24.1	20.0	76.8	77.3	76.7
공학	27.7	27.1	30.2	74.3	74.6	73.4
이학	25.6	24.1	26.7	75.3	75.3	75.4
의학	15.1	17.4	14.2	70.3	71.1	69.9
예체능	10.2	8.5	11.2	68.5	67.3	69.1

주: 영어시험 성적은 표본 중 각 시험종류별 최고득점자 대비 비율로 계산.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문대학에서는 6%로 매우 낮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에서 35%로 높은 반면, 의
 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에서는 15%와 10%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외 전공에
 서는 21~28%로 전공별 차이가 있다. 영어시험의 성적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학에서 77%에 이르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63%로 약 14%포인트의 차
 이가 있다.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에서 79%로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
 에서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외 전공에서는 74~78%로 차이가 크
 지는 않다.

3) 취업사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1) 직업교육훈련

『대졸자조사』에서는 대학 입학 후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고 있다.⁶⁾ 먼저 참여 경험 여부를 파악한 후 교육훈련의 분야, 기간

6)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의 설문

〈표 5〉 취업사교육: 직업교육훈련

(단위: %, 시간, 만 원)

	여부			훈련시간			훈련비용			본인부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3	6.9	7.6	222	247	200	139	148	132	25.2	23.9	26.3
대학 유형												
전문대학	6.9	7.1	6.8	222	240	207	116	106	122	19.4	16.0	22.2
일반대학	7.5	6.8	8.2	221	253	193	153	169	140	28.3	28.4	28.2
교육대학	9.1	5.4	10.6	218	121	240	68	60	70	35.1	8.8	41.5
전공계열												
인문	6.7	5.9	7.1	186	167	193	161	136	171	27.4	14.0	32.9
사회	7.5	6.2	8.6	183	182	184	123	131	118	26.7	28.1	25.8
사범	5.8	5.2	6.0	213	235	206	105	196	87	30.6	26.2	31.8
공학	8.3	8.0	9.5	310	314	298	138	152	93	19.0	19.1	18.3
이학	7.2	5.3	8.7	149	150	149	145	116	157	21.5	15.0	24.4
의학	5.5	3.9	6.2	173	230	160	121	43	147	9.3	11.0	8.7
예체능	7.5	8.4	6.9	230	232	228	175	211	152	40.2	44.7	36.8

주: 취업 이전에 참여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달력상 시점과 중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취업 이전 또는 이후), 총이수시간, 비용부담 주체, 총비용과 본인부담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취업사교육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중 취업 이전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만을 고려한다.

〈표 5〉는 대졸자의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대졸자 중 7.3%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다소 비중이 높다. 직업교육훈련 이수시간은 평균 222시간인데, 남성에서 247시간으로 여성에서보다 다소 길다.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은 139만 원

향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직장을 갖기 위한 취업, 창업 또는 직장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취업 또는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3개까지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직장연수, 학원수강 등이 포함되며, 통신강좌나 교양강좌도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하지만 단순한 취미활동(꽃꽂이 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과 학점 인정되는 교과목, 정규학교 교육의 학업과 관련된 학원 수강 및 과외, 고시, 공무원, 공사(공단) 등의 시험준비와 인턴은 제외하고 있다.

이나 본인부담은 25만 원으로, 정부 등 제3자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짐작할 수 있다.⁷⁾

직업교육훈련 참여 비중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교육대학에서 9%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에서 7%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교육대학에서는 여성에서 10.6%로 남성(5.4%)에서보다 월등히 높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에서 8%를 상회하는 반면 사범계열과 의학계열에서는 6%를 하회하여, 전공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유형별로 직업교육훈련 이수시간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공학계열에서는 310시간에 이르는 반면 이학계열에서는 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9시간이다.

직업교육훈련 총비용은 일반대학에서는 153만 원에 이르는 반면 교육대학에서는 68만 원에 불과하며,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175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범계열에서는 105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비용 중 본인부담은 교육대학에서 35만 원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대학에서 20만 원 미만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공별 본인부담 비용을 보면, 예체능계열에서 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2) 자격증 취득

『대졸자조사』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는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 중요한 자격증 3개까지에 대하여 자격증의 명칭 및 유형, 취득시기, 취득의 주된 목적, 유용성, 비용부담 주체,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과 본인부담액,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취득경로, 준비기간과 실제 준비기간, 상위자격 취득 의사 등이 포함된다.⁸⁾ 직업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취업사교육이 첫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취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만을 고려한다.

다음 <표 6>은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 대졸자 중 6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비중은

7) 이러한 배경으로 판단하건대,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첫 일자리 취업확률이나 임금수준에 부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참여한 자들의 고용가능성이 낮으며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운전면허는 1종 대형 및 특수차량 면허만 포함되고 1종 보통과 2종은 제외. 자격증 유형은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구분함.

〈표 6〉 취업사교육: 자격증

(단위: %, 월, 만 원)

	취득 비중			실제 준비기간			총비용			본인부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0.9	57.3	64.3	16.9	13.7	19.5	59.2	56.1	62.2	19.1	21.2	17.3
대학 유형												
전문대학	63.1	57.5	67.5	17.4	13.9	19.8	56.8	46.8	64.1	17.3	18.3	16.7
일반대학	58.7	56.8	60.8	15.7	13.1	18.3	60.6	60.5	60.7	20.3	22.6	18.1
교육대학	94.4	92.6	95.1	35.9	31.7	37.5	67.2	70.8	65.3	18.9	34.1	12.9
전공계열												
인문	54.1	47.8	57.1	12.8	11.1	13.5	64.4	55.6	68.2	18.5	21.6	17.2
사회	59.5	55.0	63.4	13.5	11.4	15.2	63.6	66.4	61.3	21.7	23.3	20.5
사범	86.7	83.1	87.7	37.7	34.7	38.6	58.1	70.0	54.2	15.6	23.9	13.2
공학	57.3	57.8	55.1	9.9	10.2	8.6	45.3	46.9	38.0	16.8	17.9	12.1
이학	60.0	57.4	62.1	13.1	11.2	14.5	62.2	55.7	67.1	21.8	24.1	20.2
의학	83.2	79.0	85.0	27.0	28.0	26.6	51.1	52.6	50.5	11.7	15.3	10.3
예체능	47.4	47.6	47.2	14.2	15.8	13.2	80.1	65.8	88.5	26.9	30.7	24.6

주: 취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남성(57%)보다 여성(64%)에서 높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제 준비기간은 약 17개월인데, 남성에서는 14개월인 반면 여성에서는 20개월로 다소 길다.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은 약 60만 원이지만, 본인부담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 하는 19만 원 정도이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총비용은 높은 반면 본인부담은 낮아 본인부담 비중에 성별 차이가 있다.

자격증 취득 비중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교육대학에서 94%로 상당히 높은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6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공계열별로는 사범계열과 의학과계열에서 87%와 83%로 월등히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에서는 50% 미만이며, 그 외 전공에서는 54~60%의 수준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제 준비기간은 교육대학에서는 36개월에 이르는 반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16~17개월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전공별로는 사범계열에서 38개월, 의학과계열에서 27개월에 이르는 반면 공학과계열에서는 10개월을 하회하고, 그 외 전공에서는 13~14개월 정도이다.

20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은 교육대학에서 67만 원인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57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80만 원인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45만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격증 취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은 일반대학에서 다소 많고 전문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를 전공별로 보면 예체능계열, 이학계열, 사회계열에서는 20만 원을 넘는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12만 원 정도이다.

4) 취업사교육: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대졸자조사』에서는 ‘대학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시험 준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시험은 크게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고시(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무원시험(7급, 9급, 8급 간호직, 10급 기능직), 교원 임용시험, 공단·공사시험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인, 언론사 시험이 포함된다.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표본에 대하여, 시험 준비의 주된 동기, 시험 준비기간, 실제 준비기간, 응시 횟수, 시험 준비 방법, 월평균 소용 비용, 최종 합격 여부, 현재 계속 준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⁹⁾

(1) 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를 보여주는 <표 7>을 보면, 대졸자 중 13%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소 높고, 이들 중 합격 비중은 약 시험 준비 경험자 4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3.6%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다소 높다. 공무원시험 실제 준비기간은 평균 약 19개월로 남성에서 다소 길고, 월평균 비용은 약 43만 원(남성에서는 45만 원, 여성에서는 42만 원)으로 총비용은 약 860만 원에 이른다.¹⁰⁾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중은 교원임용시험이 거의 필수인 교육대학에서 87%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17%, 전문대학에서는 5%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전공별로는 역시 사범계열에서 절반을 넘는 수준이며,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이 15%를 전후한 수준인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 및 공학계열에서

9) 시험 준비 방법에는 학원 수강, TV 방송, 인터넷 강의, 학교 내 특강 수강, 그룹 스터디, 독학 등이 포함된다.

10) 시험 준비 소요 비용에는 책값, 학원 수강료, 고시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

〈표 7〉 취업사교육: 공무원시험

(단위: %, 월, 만 원/월)

	시험 준비 여부			시험 합격 비중			실제 준비기간			월평균 비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3.1	12.4	13.8	3.6	3.1	4.1	18.7	19.6	18.0	43.3	44.8	42.1
대학 유형												
전문대학	4.1	4.5	3.8	0.6	0.9	0.4	15.7	17.7	13.9	40.1	45.0	35.4
일반대학	16.9	15.5	18.4	3.7	3.4	4.1	19.3	20.0	18.7	44.3	45.1	43.5
교육대학	87.2	89.2	86.3	72.6	61.5	77.1	17.9	17.8	18.0	39.7	40.3	39.5
전공계열												
인문	13.4	12.8	13.7	1.6	3.0	1.0	15.9	18.6	14.6	41.6	35.1	44.5
사회	15.9	17.4	14.5	2.9	3.0	2.9	21.2	23.1	19.2	49.7	52.4	46.6
사범	51.5	68.9	46.4	25.7	30.8	24.3	20.1	20.6	19.8	40.7	40.1	41.0
공학	7.1	7.2	6.6	1.6	1.7	0.8	16.5	16.3	17.0	36.7	38.3	29.2
이학	10.6	10.0	11.0	1.8	1.4	2.0	14.9	14.5	15.1	35.6	36.4	35.1
의학	5.9	7.6	5.1	1.3	2.6	0.8	14.7	18.0	12.5	39.0	34.1	42.2
예체능	3.2	4.8	2.2	0.6	0.9	0.4	14.3	12.5	16.6	57.6	72.0	39.0

주: 공무원시험에는 고시,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공단(사)시험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시험 합격 비중을 보면, 교육대학에서는 73% 수준으로 준비 경험자의 85%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 일반대학에서는 3.7%로 준비 경험자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문대학에서는 0.6%로 준비 경험자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전공별 합격 비중은 사범계열에서 26%로 가장 높고(준비 경험자의 약 절반), 그 외 전공에서는 사회계열에서 2.9%로 가장 높은 반면 예체능계열에서 0.6%로 가장 낮다.

공무원시험 실제 준비기간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19개월로 다소 긴 반면 전문대학에서 16개월로 다소 짧으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사범계열에서 20개월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그 외 전공에서는 14~16개월 정도로 차이가 많지는 않다.

공무원시험 준비 비용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월평균 44만 원으로 다소 높은 반면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40만 원 정도이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

22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서 5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회계열에서 약 5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에서 36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2) 전문자격시험

대졸자의 전문자격시험 준비 실태를 보여주는 <표 8>을 보면, 대졸자 중 1.5%가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비중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다소 높다. 합격 비중은 시험 준비 경험자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0.5%인데, 준비 경험자 중 합격 비중은 남성에서는 4.5명 중 1명, 여성에서는 약 3명 중 1명이다. 전문자격시험 준비기간은 평균 약 19개월로 남성에서 20개월로 다소 긴 편이며, 월평균 비용은 약 47만 원(남성에서는 51만 원, 여성에서는 41만 원)으로 공무원시험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중은 교육대학에서는 전무하며, 일반대학에서 2.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에서 3.3%로 가장 높고,

<표 8> 취업사교육: 전문자격시험

(단위: %, 월, 만 원/월)

	시험 준비 비중			시험 합격 비중			실제 준비기간			월평균 비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5	1.8	1.3	0.5	0.5	0.4	18.6	20.2	16.5	46.6	50.6	41.3
대학유형												
전문대학	0.4	0.4	0.3	0.1	0.1	0.0	9.9	10.2	9.6	30.6	35.8	25.7
일반대학	2.3	2.6	2.0	0.7	0.8	0.6	19.5	21.1	17.3	48.3	51.9	43.3
교육대학	0.0	0.0	0.0
전공계열												
인문	1.9	1.3	2.1	0.5	0.3	0.6	15.5	15.0	15.6	45.5	73.1	37.3
사회	3.3	4.5	2.3	1.1	1.5	0.7	20.0	21.5	17.5	44.9	51.1	34.5
사범	0.2	0.5	0.2	0.2	0.5	0.2	21.5	36.0	8.6	44.3	39.6	48.4
공학	0.8	0.7	0.9	0.2	0.1	0.4	18.0	17.6	19.3	38.1	35.4	47.5
이학	1.8	1.9	1.7	0.5	0.5	0.4	18.9	20.7	17.4	56.1	73.0	41.9
의학	0.0	0.1	0.0	0.0	0.0	0.0	6.0	6.0	.	100	100	.
예체능	0.4	0.6	0.4	0.0	0.0	0.0	9.0	12.8	5.3	67.5	13.1	121

주: 전문자격시험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인문계열과 이학계열에서 2%를 밑도는 반면 의학계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전문자격시험 합격 비중을 보면, 일반대학에서는 0.7%로 준비 경험자의 30% 정도의 수준이며, 전문대학에서는 0.1%로 4명 중 1명 정도이다. 전공계열별로는 사범계열에서 거의 100%에 이르는 반면 사회계열과 이학계열에서는 3명 중 1명, 인문계열과 공학계열에서는 약 4명 중 1명이며, 예체능계열에서는 전무하다.

전문자격시험 준비기간은 일반대학에서 20개월에 이르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전공별로는 사회계열과 사범계열에서 20개월을 상회하는 반면 예체능계열과 의학계열에서는 10개월 미만으로 상당히 짧다. 전문자격시험 준비 비용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월평균 48만 원을 넘는 반면 전문대학에서는 30만 원 수준이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에서 68만 원으로 높고, 이학계열에서 약 56만 원에 이르는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약 38만 원이다.

3. 취업사교육과 취업

취업사교육 각각이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까? 취업사교육이 적절한 투자라면,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9>는 이러한 예상에 대한 실제 사실을 보여준다.

분석대상인 1만 4,401명 중 조사기준일까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표본은 1만 2,797명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비중은 88.4%이며, 취업 비중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첫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은 약 8,700원으로 남성(9,500원을 상회)이 여성(8,000원 하회)보다 높다.¹¹⁾

어학연수 경험 여부와 첫 일자리 취업은 표에서 보듯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여성에서보다 남성에서 다소 강하다. 첫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 역시 경험자에서는 1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한편, 무경험자에서는 8,400원 정도로 16% 낮은 편이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여성(1,500원)보다는 남성(2,100원)에서 크다.

취업 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취업 비중을 약 1.5%포인트 상승시키는

11) 첫 일자리를 취득할 당시의 임금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료상 한계가 존재한다. 대졸자조사에서는 첫 일자리가 조사기준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즉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이면 통상 주당 정규 및 초과 근로시간과 월평균 근로소득 및 급여형태를 조사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첫 일자리가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 첫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3개월(3개월 미만 일하였으면 실제 근무기간)의 평균값을 파악하고 있어 양자간 차이가 존재한다.

24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표 9〉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단위: %, 원/시간)

	취업 비중			시간당 임금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88.4	89.0	87.9	8,706	(20,391)	9,521	(20,829)	7,926	(18,951)
이학연수									
경험 없음	87.8	88.2	87.5	8,427	(19,913)	9,198	(20,397)	7,690	(18,476)
경험 있음	91.9	93.8	90.1	10,200	(21,105)	11,253	(21,022)	9,191	(19,863)
직업교육훈련									
불참	88.3	88.9	87.8	8,750	(20,446)	9,586	(20,889)	7,943	(18,930)
참여	89.8	90.2	89.3	8,160	(19,504)	8,666	(19,554)	7,726	(19,178)
자격증									
없음	84.9	86.6	83.0	9,036	(22,528)	9,764	(22,549)	8,178	(21,643)
취득	90.7	90.8	90.6	8,508	(18,834)	9,349	(19,427)	7,798	(17,298)
공무원시험									
준비 않음	90.5	91.4	89.7	8,693	(20,842)	9,551	(21,161)	7,855	(19,393)
준비 함	74.7	72.4	76.6	8,809	(16,838)	9,258	(17,746)	8,449	(15,811)
합격	92.6	93.8	91.8	9,916	(12,912)	9,910	(14,258)	9,921	(11,917)
불합격	67.8	65.3	70.1	8,234	(18,076)	8,948	(19,021)	7,630	(16,523)
전문자격시험									
준비 않음	88.6	89.2	88.0	8,668	(20,230)	9,476	(20,623)	7,900	(18,863)
준비함	79.9	81.0	78.4	11,407	(25,620)	12,265	(27,027)	10,221	(21,941)
합격	90.7	92.7	88.0	14,779	(24,670)	15,553	(26,373)	13,657	(20,872)
불합격	75.3	76.0	74.4	9,698	(22,024)	10,547	(23,927)	8,551	(17,064)

주: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와 자격증 취득.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데 이러한 효과에서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임금수준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갖는데,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은 8,100원 정도로 무경험자보다 오히려 600원 정도 적고, 이러한 임금 격차는 여성(200원) 보다는 남성(900원 정도)에서 더 크다.

취업 전 자격증 취득은 첫 일자리 취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비중은

91%로 미취득자에 비해 6%포인트 가까이 높은 편이지만 자격증 취득자의 시간당 임금은 8,500원으로 미취득자보다 500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취업 비중의 격차는 남성(4%포인트)보다는 여성(약 8%포인트)에서 더 크고, 임금수준의 격차 역시 남성(400원)보다는 여성(1,300원)에서 더 크다.

공무원시험이나 전문자격시험 모두 예상했던 대로 취업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공무원시험 준비자의 취업 비중은 75%로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약 16%포인트 낮고, 전문자격시험에서는 취업 비중의 격차가 9%포인트로 다소 작은 편이다. 시험준비자를 시험합격 여부로 나누어 보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취업 비중은 93%로 불합격자보다 25%포인트 가까이 높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대졸자보다도 다소 높다. 전문자격시험 합격자 역시 취업 비중이 91%로 불합격자에 비해 15%포인트나 높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대졸자보다 높다.

취업과는 반대로 시험 준비는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약 100원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지만,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졸자에 비해 약 2,800원 높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 이를 시험합격 여부로 보면 차이는 더 커진다. 공무원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임금격차는 1,700원에 이르며, 전문자격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 임금격차는 5,1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험 합격 여부에 따른 격차는 공무원시험에서는 남성(약 1,000원)보다 여성(2,300원)에서 더 큰 반면, 전문자격시험에서는 남녀 모두 5,000원 정도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일단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IV.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1. 실증모형

첫 일자리에서 취업사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실증모형을

$$w = Z\beta + \epsilon_w \text{(회귀식)}$$

26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J^* = X\alpha + \epsilon_j(\text{선택식}) \quad \text{모형 (1)}$$

로 정의한다.

- 여기서, w : 첫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¹²⁾
- Z : 첫 일자리에서의 시간당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
- J^* : 첫 일자리 취업 여부
- X : 첫 일자리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
- α, β : 이에 상응하여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
- ϵ_j, ϵ_w : 취업식과 임금식의 오차항(error term)
- $\epsilon_w \sim N(0, \sigma^2), \epsilon_j \sim N(0, 1), \text{corr}(\epsilon_j, \epsilon_w) = \rho$

이다.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J^* 가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므로, 관찰가능한 이진변수(binary variable)

$$J = \begin{cases} 1 & \text{if } X\alpha + \epsilon_j > 0(\text{취업}) \\ 0 & \text{if } X\alpha + \epsilon_j \leq 0(\text{미취업}) \end{cases}$$

를 사용하며, 시간당 임금(w)은 취업하였을 때($J=1$)에만 관찰되어, 선택(selectivity)을 고려한 토빗모형이 된다.¹³⁾

통상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취업은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이 부합할 때 이루어지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즉, 노동력 공급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더라도 수요자가 이를 낮게 평가한(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 제의를 하거나 반대로 수요자는 제대로 평가한 일자리 제의를 하더라도 공급자의 기대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취업식의 설명변수(X)로는 여성, (졸업 당시) 연령, 대입 재수 경험, 대학 순

12)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과 72시간에서 절단하고(censored)(20시간 미만이면 20시간으로 72시간을 초과하면 72시간으로 간주)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30시간에서 우측절단하여 과소 또는 과대 근로시간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의 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13) $\rho \neq 0$ 일 때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회귀식만 추정하게 되면 추정량이 편이(biased)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고려한 토빗모형(Heckman의 선택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며 점근적 효율추정량(consistent and asymptotically efficient estimates)이다. 본고에서는 STATA의 heckman에서 최우추정법과 이단계추정법(two-step estimation) 중 전자를 택하였다.

위 또는 전문대학 순위,¹⁴⁾ 순위권 외의 (전문)대학, 대학 유형(기준: 전문대학), 대학 소재지(기준: 서울), 전공계열(기준: 인문계열),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학점(로그, 만점 대비 비율), 재학 중 근로 경험, 휴학 경험, 재학 중 취업 및 경력개발 7가지 지원 프로그램 각각의 참여,¹⁵⁾ 구직활동으로 구성된다. 구직활동에 관한 변수들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에 응시하지는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구직활동 없음, (응시는 하였으나) 일자리 면접 무경험, (일자리 면접은 보았으나) 일자리 제안 무경험, (일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거절한 적이 없이) 일자리 제안을 수락, (일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는)로 구성된다.¹⁶⁾

임금식의 설명변수(Z)에는 근속기간(연)과 첫 일자리 소재지(기준: 서울),¹⁷⁾ 여성, (조사 당시) 연령, 대학 순위 또는 전문대학 순위, 순위권 외의 (전문)대학, 대학 유형(기준: 전문대학), 대학 소재지(기준: 서울), 전공계열(기준: 인문계열),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학점(로그, 만점 대비 비율), 재학 중 근로 경험, 휴학 경험이 포함된다.^{18) 19)}

기본모형 (1)에 취업사교육 관련 변수(I)를 추가하면, 모형은

$$J^* = X\alpha + I\gamma + \epsilon_j$$

$$w = Z\beta + I\delta + \epsilon_w \quad \text{모형 (2)}$$

- 14)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1~200위까지,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1~60위까지 서열을 적용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순위권 외’로 가변수 처리한다(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자료를 활용). 대학에서의 전공계열이나 성적만으로 취업과 관련된 능력을 포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의 대변수(proxy variable)로 포함하였으며, 노동력 수요자인 기업의 선호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 이에겐 진로 및 취업에 관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이 포함된다.
- 16) 일자리 탐색의 정도에 따라 취업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졸업 이전 조기에 취업한 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을 확률이 낮을 것이며, 상당수 표본이 구직활동 없이 ‘소개 등’으로 ‘바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표본의 취업확률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 17) 첫 일자리 취업 당시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을 통제함으로써 취업 당시 임금을 추정하려 하였다는 점은 자료상 한계이다. 지역 간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첫 일자리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외 일자리 특성(예를 들면,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에 따라 생기는 임금의 차이는 통제하지 않는다.
- 18) 일부 설명변수(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 참가 여부 등)는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
- 19)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부표 1>을 참조.

여기서, I :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사교육으로 구성된 설명변수

γ, δ : 이에 상응하여 추정되어질 계수의 벡터

이다. 취업사교육 설명변수(I)에는 (해외)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성적,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 합격과 불합격(기준: 공무원시험 준비 미경험자), 전문자격시험 합격과 불합격(기준: 전문자격시험 준비 미경험자)이 포함된다.

추가 설명변수의 적정성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H_0: \gamma=0, \delta=0 \quad \text{vs.} \quad H_A: H_0 \text{가 아니다}$$

로 설정할 수 있는데, 취업사교육이 추가적으로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하에서는 제약이 주어진(restricted) 모형 (1)이 진(true)이며, 취업사교육이 추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는 대립가설 하에서는 제약이 없는(unrestricted) 모형 (2)가 진이다. 둘째,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하에서 얻어진 최우도를 각각 L_R 과 L_U 라 하면, 우도비 검정통계량은

$$LR = -2(L_R - L_U) \sim \chi^2(r),$$

r = 자유도 = 제약식의 수 = 추가된 설명변수의 개수

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LR_0 > \chi_0^2(r_0)$ 이면 모형 (2)를, 그렇지 않으면 모형 (1)을 수용한다.

2.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 결정요인

<표 10>은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치와 앞서 언급한 가설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설 검정결과는 취업사교육이 취업과 임금수준의 결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가의 효과를 갖는다는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여기에서는 모형 (2)의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결정요인들이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²⁰⁾

먼저 대학의 특성과 취업사교육을 함께 통제하면, 여성의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첫 일자리에서 시간당 임금은 9% 가까이 낮고, 졸업 당시 연령은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학 입시 당시의 재수 경험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대학 교육과정의 효과

대학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먼저 대학 순위는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지만 첫 일자리에서 시간당 임금은 대학 서열이 낮을수록(대학 순위가 커질수록) 낮아지는데, 대학과 전문대학의 순위가 10위 늘어날 때 시간당 임금은 각각 1.6%와 2.3% 정도 낮아진다.

대학 유형의 효과를 보면, 전문대학과 비교할 때 일반대학의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교육대학 졸업자의 취업확률은 높으며, 첫 일자리에서 시간당 임금은 일반대학 졸업자는 18% 정도, 교육대학 졸업자는 3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경기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졸업자의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시간당 임금 역시 6.6~10% 정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인문계열과 비교할 때 공학계열과 의계열 졸업자의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여타 전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예체능계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공계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학계열과 의계열 졸업자는 취업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 졸업 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업에 도움을 주지만 임금수준에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연계전공은 취업이나 임금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대학에서의 학점은 취업과 임금이 상당히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 학점(만점

20) 추정결과는 $\rho=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택식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의 회귀식을 추정하여도 편의를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이후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10〉 취업과 임금수준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취업 여부	임금수준	취업 여부	임금수준
근속기간(연)		0.1782(.0054)***		0.1732(.0054)***
여성	-0.0650(.0418)	-0.0837(.0094)***	-0.0959(.0433)**	-0.0890(.0094)***
연령(조사 당시)		0.0219(.0022)***		0.0208(.0022)***
연령(졸업 당시)	0.0080(.0115)		0.0101(.0119)	
대입 재수 경험	-0.1238(.0379)***		-0.1459(.0390)***	
대학 순위	0.0007(.0005)	-0.0018(.0001)***	-0.0001(.0005)	-0.0016(.0001)***
전문대 순위	0.0005(.0021)	-0.0026(.0005)***	-0.0003(.0022)	-0.0023(.0004)***
(전문)대학 순위 외	-0.0629(.0706)	-0.1030(.0158)***	-0.1101(.0723)	-0.0952(.0157)***
대학 유형(기준: 전문대학)				
일반대학	-0.1553(.0706)**	0.1928(.0156)***	-0.0289(.0730)	0.1784(.0157)***
교육대학	0.4691(.1242)***	0.3993(.0271)***	0.4547(.1414)***	0.3458(.0297)***
대학 소재지(기준: 서울)				
경기권	0.0332(.0480)	-0.0702(.0103)***	0.0276(.0496)	-0.0662(.0102)***
충청권	-0.1623(.0532)***	-0.0707(.0137)***	-0.1929(.0551)***	-0.0664(.0136)***
경상권	-0.1511(.0496)***	-0.1040(.0154)***	-0.1416(.0516)***	-0.0995(.0153)***
호남권	-0.1450(.0546)***	-0.1076(.0181)***	-0.1489(.0573)***	-0.1006(.0180)***
전공(기준: 인문)				
사회	-0.0368(.0531)	0.0546(.0124)***	0.0186(.0552)	0.0588(.0124)***
사범	-0.0911(.0691)	0.0620(.0169)***	0.0373(.0740)	0.0837(.0174)***
공학	0.2420(.0570)***	0.0715(.0131)***	0.1971(.0589)***	0.0777(.0129)***
이학	0.0362(.0608)	0.0127(.0142)	0.0108(.0628)	0.0207(.0142)
의학	0.5388(.0860)***	0.1952(.0172)***	0.4756(.0892)***	0.2062(.0170)***
예체능	0.0395(.0602)	-0.0657(.0141)***	-0.0088(.0621)	-0.0553(.0142)***
복수전공	0.3063(.1332)**	-0.0163(.0232)	0.2943(.1348)**	-0.0178(.0230)
부전공	0.2148(.1266)*	0.0115(.0226)	0.2496(.1282)*	0.0124(.0224)
연계전공	-0.1057(.1238)	0.0302(.0221)	-0.0974(.1253)	0.0281(.0219)
학점(로그)	0.4007(.1332)***	0.2076(.0305)***	0.3298(.1374)**	0.1921(.0303)***
학점무응답	1.6889(.5893)***	0.9269(.1349)***	1.3494(.6073)**	0.8582(.1343)***

〈표 10〉 계 속

	모형 (1)		모형 (2)	
	취업 여부	임금수준	취업 여부	임금수준
재학 중 근로	-0.0103(.0302)	-0.0388(.0067)***	0.0173(.0313)	-0.0331(.0067)***
휴학	-0.0227(.0399)	0.0172(.0088)*	-0.0219(.0413)	0.0084(.0088)
구직 과정(기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지원 무경험)				
구직활동 없음	0.8062(.1174)***		0.8319(.1196)***	
일자리면접 무경험	0.3955(.1440)***		0.5063(.1472)***	
일자리제안 무경험	0.6021(.1249)***		0.6237(.1276)***	
일자리제안 수락	1.7270(.1304)***		1.7499(.1334)***	
일자리제안 거절	1.2495(.1221)***		1.2480(.1247)***	
해외연수			0.1594(.0478)***	0.0485(.0095)***
영어성적(로그)			-0.0300(.0091)***	0.0090(.0019)***
영어성적 무응답			-0.1994(.1809)	0.0352(.0393)
직업교육훈련			-0.0981(.0609)	-0.0497(.0124)***
자격증 소유			0.2427(.0318)***	-0.0133(.0072)*
공무원시험: 합격			0.1131(.0910)	0.0379(.0192)**
불합격			-0.8882(.0437)***	-0.0694(.0147)***
전문자격시험: 합격			-0.1160(.2243)	0.2969(.0456)***
불합격			-0.5734(.1140)***	-0.0139(.0317)
상수	-1.5732(.6613)**	7.3629(.1479)***	-1.3511(.6802)**	7.4515(.1469)***
ρ	-0.1082(.0830)		-0.0794(.0686)	
σ	0.3653(.0024)		0.3626(.0023)	
Lambda	-0.0395(.0304)		-0.0288(.0249)	
표본	14,401		14,401	
-로그우도	9,868.29		9,518.24	
모형적합도	5,009.11***		5,167.90***	
가설 검정(추가변수)			700.10***	

주: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재학 중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7가지) 각각의 참여 여부와 첫 일자리의 소재지(광역 시도)에 대한 추정치는 편의상 보고하지 않음.
 대학 순위(1~200) 및 전문대학 순위(1~60)를 적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대비 비율)이 10% 높으면 (예를 들면, 80%에서 88%로 높아지면) 시간당 임금은 2% 가까이 상승한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점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졸업 후 적극적 구직활동은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구직활동만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졸자와 비교할 때, 일자리 면접을 하고 일자리 제안을 받은 대졸자의 취업확률이 높는데, 졸업 후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취업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의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졸업 이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취득한 표본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취업사교육의 효과

취업사교육 중 어학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수준을 약 5% 높이는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영어시험 점수는 취업확률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첫 일자리에서 임금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데, 영어시험 점수가 높은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취득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은 취업확률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않고 임금수준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자격증 취득은 취업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임금수준에는 다소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직업교육훈련 참여자가 비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자격이 아닌 자격증의 취득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격증 취득과정에 소요된 기간이 오히려 다른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취업과 업무능력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공무원시험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때 이에 합격하더라도 취업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지만 임금수준은 4% 정도 높아져 긍정적이지만,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취업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고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약 7% 낮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작정을 하고 준비하여 합격하지 않으면, 취업확률 또는 취업기회뿐 아니라 취업하였을 때 낮은 임금수준 양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자격시험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합격 여부가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공무원시험의 경우와 유사한데, 합격하면 임금수준이 30%나 상승하고 불합격 하더라도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는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면 취업기회를 상실하는 또는 그 기간만큼 취업이 늦어지는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공무원시험과는 달리 임금수준의 차이라는 비용은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취업사교육의 효과: 투자기간과 투자 비용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 여부에서 더 나아가 투자기간이나 투자 비용이 취업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취업사교육 여부 변수를 해당 취업사교육의 투자기간 또는 투자 비용으로 하나씩 변화시키는 반면, 그 외 변수들은 투자 여부로 그대로 두도록 모형 (2)를 수정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11>~<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어학연수 기간과 총비용 및 단위 비용(월비용)이 취업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표 11>에서 보듯이 남성에서는 각각이 모두 취업과 임금수준 양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여성에서는 모두 취업에는

<표 11> 사교육의 효과: 어학연수

모형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취업				
2	어학연수 경험	0.1594(.0478)***	0.2486(.0705)***	0.0474(.0669)
2a	어학연수 기간	0.0115(.0044)***	0.0181(.0065)***	0.0033(.0061)
2a'	어학연수 총비용	0.0001(.0000)***	0.0001(.0000)***	0.0000(.0000)
2a''	어학연수 월비용	0.0009(.0003)***	0.0016(.0004)***	0.0002(.0003)
임금수준				
2	어학연수 경험	0.0485(.0095)***	0.0484(.0134)***	0.0449(.0136)***
2a	어학연수 기간	0.0043(.0008)***	0.0045(.0012)***	0.0038(.0012)***
2a'	어학연수 총비용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a''	어학연수 월비용	0.0002(.0000)***	0.0002(.0001)***	0.0001(.0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표 12〉 사교육의 효과: 직업교육훈련(취업 이전)

모형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취업				
2	직업교육훈련 참여	-0.0981(.0609)	-0.1188(.0871)	-0.1007(.0861)
2b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0.0003(.0002)*	-0.0002(.0002)	-0.0003(.0002)*
2b'	직업교육훈련 총비용	-0.0002(.0003)	-0.0003(.0004)	-0.0002(.0004)
2b''	직업교육훈련 본인부담	0.0008(.0009)	0.0009(.0014)	0.0006(.0012)
임금수준				
2	직업교육훈련 참여	-0.0497(.0124)***	-0.0658(.0179)***	-0.0373(.0170)**
2b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	-0.0001(.0000)***	-0.0001(.0000)***	-0.0001(.0000)**
2b'	직업교육훈련 총비용	-0.0001(.0001)	-0.0002(.0001)***	0.0000(.0001)
2b''	직업교육훈련 본인부담	-0.0002(.0001)	-0.0004(.0002)**	0.0000(.00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으나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한편,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기간은 여성의 취업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한편 임금수준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갖는다. 반면 총비용과 본인부담 비용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취업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지만 남성의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이는 설명변수를 어떻게 포착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취업사교육 투자가 취업확률 또는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의 효과를 보면, 〈표 13〉에서 보듯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총비용이 남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설명변수의 설정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반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실제 준비기간, 총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공무원시험의 실제 준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평균 비용이 많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실제 준비기간이 남성의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제외하

〈표 13〉 사교육의 효과: 자격증 취득(취업 이전)

모형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취업				
2	자격증 취득	0.2427(.0318)***	0.1835(.0443)***	0.3090(.0463)***
2c	자격증 취득 실제준비기간	0.0067(.0010)***	0.0060(.0017)***	0.0071(.0014)***
2c'	자격증 취득 총비용	0.0006(.0002)***	0.0005(.0003)	0.0007(.0003)**
2c''	자격증 취득 본인비용	0.0027(.0006)***	0.0031(.0009)***	0.0022(.0008)***
임금수준				
2	자격증 취득	-0.0133(.0072)*	-0.0043(.0099)	-0.0240(.0105)**
2c	자격증 취득 실제준비기간	-0.0001(.0002)	0.0004(.0003)	-0.0004(.0003)
2c'	자격증 취득 총비용	0.0000(.0000)	0.0001(.0001)	0.0000(.0000)
2c''	자격증 취득 본인비용	0.0001(.0001)	0.0001(.0001)	0.0001(.0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표 14〉 사교육의 효과: 공무원시험

모형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취업				
2	공무원시험 합격	0.1131(.0910)	0.1252(.1351)	0.1002(.1251)
2	공무원시험 불합격	-0.8882(.0437)***	-0.9816(.0610)***	-0.8034(.0640)***
2d	공무원시험 실제준비기간	-0.0294(.0016)***	-0.0308(.0022)***	-0.0281(.0024)***
2d'	공무원시험 월평균 비용	-0.0036(.0004)***	-0.0044(.0006)***	-0.0029(.0007)***
임금수준				
2	공무원시험 합격	0.0379(.0192)**	-0.0178(.0279)	0.0925(.0264)***
2	공무원시험 불합격	-0.0694(.0147)***	-0.0802(.0243)***	-0.0589(.0188)***
2d	공무원시험 실제준비기간	-0.0008(.0006)	-0.0015(.0009)*	-0.0002(.0007)
2d'	공무원시험 월평균 비용	0.0000(.0001)	0.0000(.0002)	-0.0001(.00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면, 임금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문자격시험 역시 실제 준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평균 비용이 많을수록 월평균 비용이 여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의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지만 대부분의 수정모형에서 임금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

〈표 15〉 사교육의 효과: 전문자격시험

모형	변수	전체	남성	여성
취업				
2	전문자격시험 합격	-0.1160(.2243)	0.0603(.3135)	-0.3868(.3252)
2	전문자격시험 불합격	-0.5734(.1140)***	-0.5161(.1485)***	-0.7221(.1802)***
2e	전문자격시험 실제준비기간	-0.0220(.0041)***	-0.0185(.0049)***	-0.0328(.0074)***
2e'	전문자격시험 월평균 비용	-0.0025(.0011)**	-0.0026(.0013)**	-0.0022(.0024)
임금수준				
2	전문자격시험 합격	0.2969(.0456)***	0.2525(.0597)***	0.3559(.0709)***
2	전문자격시험 불합격	-0.0139(.0317)	-0.0307(.0417)	0.0084(.0496)
2e	전문자격시험 실제준비기간	0.0049(.0012)***	0.0043(.0015)***	0.0060(.0023)***
2e'	전문자격시험 월평균 비용	0.0008(.0003)**	0.0007(.0004)*	0.0011(.000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V. 결 론

1990년대 초부터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 특히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부문에서 노동수요는 상대적으로 줄고 채용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청년층 고용대책이 실시되었으나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대졸자패널조사』(2009GOMS1)에 포함된 대졸자 1만 4,401명(2009년 졸업생 38.2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를 위한 재학 중 또는 졸업 전후 이들 고학력 청년층의 취업사교육 투자 실태를 살펴본 후, (해외) 어학연수, (공식) 영어시험 성적,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 참여,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 공무원시험 및 전문자격시험 준비로 정의한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과 첫 일자리에서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정책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사교육

에 대한 투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졸자 중 15%가 평균 1,350만 원을 들여 9.4개월의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24%가 다양한 공식적 영어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7.3%는 139만 원(본인부담액은 25만 원)이 소요되는 직업교육훈련에 평균 222시간을 투입하였으며, 61%는 약 60만 원(본인부담액은 약 20만 원)과 17개월의 노력을 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13%는 월평균 43만 원을 들여 19개월 동안 공무원 시험(고시,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공단·공사시험 등)을 준비하였는데 이들 4명 중 1명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5%는 월평균 47만 원을 들여 19개월 간 전문자격시험(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인, 언론사 시험 등)을 준비하였으며 이들 3명 중 1명이 시험에 합격하였다.

둘째, 기초분석을 통하여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취업사교육 중 일부는 기대했던 대로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또 다른 일부는 별 효과를 갖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보이며,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은 시험 합격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불합격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어학연수는 취업과 임금수준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임금수준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보인다.

셋째,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을 모색하는 Heckman 선택모형(Heckman selection model)을 적용한 추정치를 보면, 대학 유형,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학점은 취업과 임금수준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순위, 재학 중 근로·휴학 경험, (조사 당시 또는 졸업 당시) 연령은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 취업에는 그렇지 않은 반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은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만 임금수준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 구직활동은 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반면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인턴을 포함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취업에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취업사교육에 대한 투자 여부를 추가한 실증분석은 취업사교육의 특성에 따라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데, 특히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준비는 합격 여부에 따라 전혀 상반된 효과를 보인다는 사

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학연수, 취업 이전 자격증 취득은 첫 일자리 취업과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반면, 취업 이전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이며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이다. 공식 영어시험 성적은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지만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이다. 공무원시험과 전문자격시험 합격은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지만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시험 불합격은 취업과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반면, 전문자격시험 불합격은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이지만 임금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시험과 비교할 때 전문자격시험이 상대적으로 합격에 따른 혜택은 큰 반면 불합격에 따른 비용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사교육 투자 여부를 투자기간이나 투자 비용으로 대체한 실증분석모형의 추정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취업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학연수는 남성에서는 취업과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반면 여성에서는 임금수준에는 그러하지만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정책함의를 찾는다면, 첫째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있는 대졸(예정) 청년층에게 기업의 채용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사교육 투자의 최적화를 유도하는 한편, 적절한 임금수준을 제공하는 첫 일자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고학력 인적자원의 불필요한 유희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취약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청년층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과정으로 개편하되 이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질적 수준(예를 들면, 시간당 비용)과 양적 수준(예를 들면, 이수시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의 취업정보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고용가능성이 낮은 재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달성가능하고 적절한 취업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최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취업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전문자격시험의 합격확률 및 이를 취득 또는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자격과 직업의 관계, 자격 취득의 혜택(임금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하게 자격을 취득하는 데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격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일자리에서의 생애임금 대비 각종 공무원의 고용안정성까지 고려한 생애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시험 준비와 관련한 청년층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도록 유도하여, 고학력 인적자본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희화되는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중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 프로그램의 유효성이 부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프로그램이 대졸 청년층의 임금수준이 적절한 첫 일자리 취업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40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부표 1〉 실증분석 기초통계

	표본	첫 일자리 미취업	첫 일자리 취업
표본 수	14,401	1,604	12,797
시간당임금(월/시간)			8,926
근속기간(연)			1.14
여성	0.470	0.500	0.466
연령(졸업 당시)	24.1	24.0	24.1
연령(조사 당시)	25.7	25.7	25.7
대학 입학 시 재수	0.255	0.281	0.251
대학 순위	34.5	37.0	34.2
전문대학 순위	4.6	3.4	4.8
순위 외 대학	0.204	0.214	0.203
복수전공	0.040	0.027	0.041
부전공	0.093	0.082	0.094
연계전공	0.127	0.111	0.129
학점(만점 대비)	77.4	75.9	77.5
재학 중 일	0.562	0.525	0.567
휴학 경험	0.676	0.658	0.678
재학 중 취업·경력 지원 프로그램 참여			
(1) 학점인정교과목	0.271	0.230	0.276
(2) 직장체험 프로그램	0.172	0.092	0.182
(3) 직업심리검사(인·적성검사 등)	0.308	0.251	0.315
(4) 교내 취업박람회	0.242	0.195	0.248
(5) 진로상담 프로그램	0.155	0.115	0.159
(6)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0.221	0.157	0.229
(7) 취업캠프	0.083	0.052	0.087
구직활동 하지 않음	0.560	0.704	0.542
일자리 지원 후 면접 경험 없음	0.018	0.034	0.016
면접 후 일자리 제안 받은 적 없음	0.066	0.108	0.061
일자리제안 거절 경험 없음	0.154	0.027	0.170
일자리제안 거절 경험 있음	0.195	0.098	0.208

〈부표 1〉 계 속

	표본	첫 일자리 미취업	첫 일자리 취업
어학연수 경험	0.163	0.113	0.169
기간(월)	1.529	1.052	1.589
기간 무응답	0.000	0.000	0.000
총비용(만 원)	212.3	136.4	221.8
총비용 무응답	0.009	0.007	0.009
월평균 비용(만 원/월)	24.8	15.5	26.0
월평균 비용 무응답	0.009	0.007	0.009
영어 성적(로그)	1.115	1.138	1.112
직업교육훈련(취업 이전) 참여	0.074	0.064	0.075
교육시간	15.6	15.1	15.7
총비용	6.826	6.240	6.899
본인부담	1.929	1.116	2.031
자격증 취득(취업 이전)	0.598	0.496	0.611
실제 준비기간(월)	9.8	7.4	10.1
월평균 비용(만 원/월)	30.2	22.6	31.1
본인부담(만 원/월)	11.1	5.6	11.8
공무원시험 합격	0.043	0.026	0.045
실제 준비기간(월)	2.7	7.1	2.1
월평균 비용	6.02	12.56	5.19
전문자격시험 합격	0.005	0.004	0.005
실제 준비기간(월)	0.322	0.704	0.275
월평균 비용	0.794	1.477	0.70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0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9GOMS1).

참 고 문 헌

- 강순희·안준기,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0, 201~231.
- 김안국·유한구·한상근·이영대·장수명,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연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10-5, 2010.
- 김정숙,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2009, 141~165.
- 김지하·박지은, “대학생의 사교육 수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2008, 93~121.
- 김태기·류장수·이종훈·이영대, “청년층의 노동시장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2-3, 2005.
- 민혜리, “대학에서의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2003, 133~149.
- 박가열·천영민, “대졸자 취업 영향요인 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3권 제1호, 2009, 29~59.
- 박성재,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4호, 2005, 65~99.
- 박성재·반정호,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정책,”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006, 29~50.
- 박환보, “대졸자 취업에 미치는 개인배경과 대학 특성의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2011, 1~25.
- 류장수, “지방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과 특성: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직업능력개발연구』 제6권 제1호, 2003, 1~25.
- _____,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2005, 1~27.
- 양승실·김현진·주경필,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9권 제2호, 2006, 145~170.
- 우광호·안준기·황성수, “교육 및 부의 세대가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2010, 121~150.
- 우해봉·윤인진,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모형,”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2008, 225~250.
- 이규용·김용현,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3, 69~94.
- 이병훈,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2002, 1~21.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2002.
- 이임정·진정오·윤관호, “우리나라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10권, 2006, 71~102.
- 이정미, “대학생의 과외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계열별 차이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9권 제2호, 2010, 65~94.
- 임천순·양병무,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3호, 2006, 1~26.
- 정지선·김훈호,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09, 89~122.
- 정지선·이수정·신정철,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시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2011, 53~78.
- 조영하·김병찬·김봉준,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2호, 2008, 437~462.
- 채구묵,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2007, 35~61.
- 채창균·김안국·오호영,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해가 인적자원개발(I):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기본연구 05-0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천세영·이석렬·이선호, “대학생의 사교육비 규모와 차이 분석,” 『교육재정연구』 13(1), 2004, 1~24.
- 최문경·이기엽,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2008, 23~48.
- 홍서연·안주엽,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2001, 19~46.

44 취업사교육과 첫 일자리

황여정·백병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 11권 제2권, 2008, 1~23.

[Abstract]

Private Investment for Jobs and the First Job of College Graduates*

Jaimie Sung** · Joyup Ahn***

The trends in generalization of tertiary education since 1990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labor demand as well as practices of recruit of companies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end of 1997 brought in severe problem in school-to-work transition of college graduates. Facing more difficulties in getting the first job after school, they have poured efforts in various types of private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jobs, so-called spec-accumulation, hoping that it might help raising their employability. The private investment for jobs, such as visit for foreign country to learn her language, higher scores in official test of foreign language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quire of skill certificates, preparing the test for being public officials or certificates of expert qualification, is theoretically expected to help getting the better first job, but it may not always true in reality.

Exploring the better labor market policies to help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situation of various types of private investment for jobs and then analyzes their contribution to the performance at the first job, by applying the Heckman selection model of the hourly wage to the 14,401 sample from the first wave of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of 2009(2009GOMS1). Visit for foreign country at the cost of 13.5 million KRW for 9.4 month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getting the first job and the higher wage rate while the opposite is tru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cost of 1.4 million KRW for 222 hours. The better scores in official English tests are positive to the level of the wage rate but negative to the probability of getting jobs while the opposite is true for acquiring skill certificates. Preparing for the test of being public

* This paper owes to the support from the 2010 Education-Research Promotion Fund from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a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el: +82-41-560-1442, E-mail: jsung13@kut.ac.kr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Tel: +82-2-3775-5555, E-mail: jyahn@kli.re.kr

officials or for the certificates of expert qualifica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wage rate but not 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the first job, if successful. Failure of these tests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the first jobs and, especially failure in the public official test significantly lower the wage rate at the first job.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ivate investment for jobs, which is accompanied by considerable time costs as well as pecuniary costs, should be optimized and, for their optimal level, it is required for companies to explicitly reveal requirements for recruit and for the job centers at colleges to actively play important roles of diffusing such information, identifying disadvantageous groups early, setting job goals appropriate for them through integrated counselling, and arranging the bes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s with the One-Stop Center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eywords: private investment for jobs, the first job, wage rate, Heckman selection model, school-to-work transition

JEL Classification: I2, J3, C4, E2